

서 울

동대, 아시안 타임행사 정기총회로 막 내려

아시안 타임(아시안 해진) 행사가 지난 11일(수) 정기총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동양에대 모든 과가 참여해 3일간 축구, 피구를 포함한 7개 종목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전 종목 메달을 획득한 일본이과가 종합 우승했다.
이번 3위까지 입상한 과들에게는 컵티가 수여됐다.
또한, 채정민 학사 후 노천극에서는 동양대엔 한반기 정기총회와 문화제가

진행됐다.
중국어과, 일본어과와 일어노래, 화교 학교 사자춤 공연, 풍채 노래, 풍물패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문화제에 이어 △동학대회 보고 △한반기 정세와 무정과에 관한 연설 등으로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오영근(베트남어과)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서양어대 정기총회 개최

서양어대 정기총회가 지난 4일(수) 대학원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70명 기량 참가한 이날 행사는 1부 순서로 △서양어대 학생대표자회의 보고 △6·15공동선언 이후 청년학생의 과제에 대한 정세발언 △한반기 무정과비오 상영 △한반기 청년 학생보고와 활동

을, 2부는 과 대학 △여자학생대표대 △공문법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한편, 서양어대 반이십찬단은 지난 15일(일) 매한리 지지방문을 진행했다.
매한리 사적지 철수 무정과에 있는 마를 주민과 건담, 일순수, 신태현 평가 등을 진행했다.

법학대학 회칙개정안 재논의키로

법학대학회칙개정안(법학대학회)가 지난 11일(수) 사회과학관 41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회칙 개정안 △14대 법대 학생회 선거결과 이행 평가 △아시아 유망 정상회담(ASG) △자치회비 사용 결산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부학생회장제 폐지"가 내용인 회칙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적인원 15명 중

8명이 찬성했지만 재적인원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대표자들은 회칙개정안의 내용이 미리 공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임시법학대학에서 다시 논의를 결정했다.
또한, 선거결과 이행 평가에서는 대학교원 평가 준비, 등록금 인상 조치 등의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어과, 100여권의 힌디어 책 기증받아

지난 13일(금) 인도어과 학과장실에서 주한 인도대사관의 공사(公使)인 S.P. Mann 씨가 100여권의 책을 인도어과에 기증했다.
기증된 도서는 인도 공용어인 힌디어(Hindi)로 집필된 책으로 인도 문화, 역사에 관한 책과 사정류이다.
이날 기증식에서 이경호 인도어과 학과장은 답례로 인도 공사에 작은 기념품을 전달했다.

인도 공사 만(Mann)씨는 "이번 기증은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교류를 증대하기 위한 취지와 인도어과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 아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로 약 200여권 이상 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번 기증도서를 건넌 인도어과는 학과장실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어과 정중, 우정장학금 신설 방안 논의

독일어과 정기총회가 지난 13일(금) 대학원 115호 강당에서 열렸다.
30여명이 참가해 정중수를 넘지 못해 안건을 의결하지는 못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우정장학금 신설 △독일어과 예산제 기회 등을 논의했다. 정중장학금의 5%를 떼어 기금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우정장학금의 신

설을 두고 참석자들은 기존, 십사기구, 홍보방법 등을 논의했으며, 우정장학금의 실시는 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추정환(96)은 "우정장학금에 대해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부서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11일(토) 경영과학을 주제로 오는 21일(토) 외국어연수관기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 인사와 학계간 및 약 80여편의 경험과 관련 논문이 발표되며, 부대행사로 소프트웨어(S/W)와 경영관련 도서전시회가 개최된다.
한편 이날 우리학과 경영학과 222인 구팀에서 정보통신분야 벤처 비즈니스를 주제로 4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조지위원장 이명호 교수는 "관심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된다"고 밝혔다.

변형운 이사장 국민훈



우리학과 변형운 이사장이 새동문회와 새동문회에서 진행된 제2 전국학원연합회 27기 위촉식 및 5회 정책회의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포상 이유는 변형운 이사장이 지난 2년간 제2 전국학원 대 표공동위원장으로 세운 공이 컸기 때문이다.

공민회계사 5명 합격

지난달 22일(금) 금융감독원이 최종합격자 35의 공민회계사 시험에서 우리학과 학생 5명이 합격했다.
이번 시험합격자 13,800명 중 합격된 우리학과 학생은 원지영(상경·경영 91), 장정실(상경·경영 92), 박민수(상경·경영 92), 윤진욱(서양·서반어 91), 남영진(서양·독어 91)로 총 5명이다.

18일 노어과 정중

러시아어과 정기총회가 오는 18일(수) 늦은 8시 대학원 210호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는 △러시아어과 학술제 △과 선거 △과 기지, 과 기발 바꾸기 등의 논의안건과 과 회장 탄핵 조항을 신설하는 회칙개정안건이 논의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이세철(96)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활발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디음악 맛짱 떠

FBS 2000 인디음악 페스티벌이 지난 11일(목) 서울메트로 노천극장에서 막 15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맛'이라는 행사제목 아래 인디밴드들이 나와 공연을 선보이고 인디음악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기도 했다.

- 사진부

용 인

산업정보시스템

공학부 학술제 진행

산업정보시스템 공학부는 지난 6,7일(토) 양일간 전시회, 진로 상담회, 대면식, 체육대회 등으로 학술제 및 모교방문의 날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고경준(96)은 "선배들에게 웹분야 뿐 아니라 다른 산업정보 영역으로의 확대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며 "예정된 부족하지만 선배들께 여전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학과와 창립행사 열려

화학과는 지난 15일(일) 5시 30분 광화문 하이마트 부에서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4시간 기량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생회장 최윤규(96)군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용인배출터 정경을 상영하고, 새내기들의 노래공연, 선행님 말씀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최윤규(96)군은 "선배가 답답하여 과거 발전할 수 있는 기쁨이 됐다"며 "과와 특성, 역사들 좋은 말씀 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매향리 농활 진행

용인배출터 총학생회는 지난 14일(토) 화성시 매향리에서 가을농활을 진행했다.
2박 3일 예정이던 이번 농활은 각 과 행사가 많이 열리는 점, 세컨즈 페릭 직후인 점, 매향리가 유령성 출혈열 발병지인 점 등을 고려해 1박으로 일정을 줄였다. 이번 농활 참가자들은 오전

에는 주민들의 농사일을 돕고, 오후에는 정부의 대한리 공작에 대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연대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이영기(인문·철학 94)군은 "참가자들이 줄어 아쉽지만 매향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좋은 기회로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외국문학연구소

오는 17일 학술발표회 열려

대학부설 중점연구소인 외국문학연구소는 오는 17일(화) 오후 3시 교수회관 2층 연례학술회에서 정기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국내의 외국문학 연구소 창설과 한국 문화의 외국 소개 활성화에 위한 이번 학술발표회는 독일의 동화학자인 하인츠 빌베르 교수와 '형상과 문제'의 그림 동화를 우리학과 양재우 교수(독일어과)가 '그림 동화에 나타난

능동적, 수동적 여성상'을 주제로 강연한다.
한편, 오는 25일(수) 동아연 연구실 심화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TIS(Text, Image and Society) 정기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성호 박사(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과 문학'을 주제로 교수와 강연장에서 발표한 후 질의응답, 토론의 등이 이어져 진행된다.

생명공학과 학술제 개최

생명공학과는 지난 12일(목) 후백관에서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계통 시대 삶의 변화, 포스트 계통 시대'의 해부 DNA' 등을 주요 개시한 진화, 현대의 중요 요소를 보여주며, 유전체 만들기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학부장 이의선(96)은 "많은 학생들에게 생명공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 해주고 싶었다"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생명공학과에 대해 조금이나마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일) 열린 모교방문의 날은 개미, 천지(합합 동아리) 공연 등으로 이뤄졌다. 학생회장 김인성(96)군은 "큰 힘이 되어 주신 선배에게 감사"라며 "선배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사학과 모교방문의 날 진행

사학과는 지난 15일(일) 선배학과의 교류를 위해 출·노래 등 새내기 공연, 헌팅공연, 체육대회, 캠프라이어 등의 행사로 인문대와 소문당에서 모교방문의 날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김해수(96)군은 "선배학과의 든든한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특히 캠프라이어 때 했던 기억들이와 강강술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블어과 축제 Fete 열려

지난 13, 14(토) 양일간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블어과 축제 Fete가 용인배출터 소극장, 서울메트로 대학원 소극장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연

재로 연극이 무대에 올랐으며 상생 학회원들의 공연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 여소영(00)양은 "과 친구들과 단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행복 정부터 열심히 연습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 줘서 기쁘다"고 전했다.

여학생 취업 특강 18일 개최

학생취업지원센터는 IMF 이후 점점 줄어드는 여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취업과시키기 위해 오는 18일(수) 4시 30분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여

학생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여학생 취업에 대한 정보 특강'을 주제로 이토호 상사 인사부장 이영숙씨가 강연한다.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대 학 원 생	
요일	아침	점심	저녁	백반	일몰	일몰
월 (16일)	불교학박 (W1,400)	한지회합 (W1,500)	오르마이스 (W1,500)	두루호박 (W2,300)	산재비합 (W2,700)	
화 (17일)	두루호박 (W1,300)	한지회합 (W1,500)	한지회합 (W1,500)	두루호박 (W2,300)	산재비합 (W2,700)	
수 (18일)	생선조리 (W1,000)	산재비합 (W1,400)	산재비합 (W1,300)	조계사삼지국 (W2,300)	산재비합 (W2,300)	
목 (19일)	생선조리 (W1,500)	오조이복음 (W1,300)	한지회합 (W1,300)	한지회합 (W2,300)	한지회합 (W2,500)	
금 (20일)	한지회합 (W1,400)	한지회합 (W1,500)	한지회합 (W1,400)	한지회합 (W2,300)	한지회합 (W2,500)	

용인배움터

구분	후 복 관		탕
요일	조 · 중식	석식	탕
월 (16일)	배우자 (W1,400)	김치야채국 (W1,400)	백반 (W1,800)
화 (17일)	미역국 (W1,400)	쇠고기무국 (W1,400)	어묵국 (W1,800)
수 (18일)	복어국 (W1,400)	호박전국 (W1,400)	수제비국 (W1,800)
목 (19일)	콩나물국 (W1,400)	콩나물국 (W1,400)	감미탕 (W1,800)
금 (20일)	우거지국 (W1,400)	감미탕 (W1,400)	장국 (W1,800)

사람 "학생들과 교감하면서 문화적 의사소통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유럽의 기업문화와 이론화 관리' 번역서를 출간한 노영환(사학) 교수를 만나



"특정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 생활 방식의 총체이며, 문화는 역사를 통해 형성된다는 인식으로 역사, 문화 공부를 시작했다"며 말문을 여는 노영환(사학)교수는 96년 '유럽의 역사와 문화'라는 모임을 연구로 시작해 학과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번역한 책 '유럽의 기업문화와 이론화(異文化) 관리'를 지난 8월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경험한 이론화 배움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회원 각국의 기업문화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서술하고 대안을 제시해 놓았다.
"세계 각 지역에 대해 연구할 때 그 지역의 기업문화에 대해 연구한 연구 결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문화화를 주제

로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노교수는 또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상당한 수준의 언어 능력과 폭넓은 문화의 지식을 요구하는 건 사실이지만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문화,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모임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효율적 자재마다 열리는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도움과 관심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노교수는 역사, 문화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해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일은 효율적 외국어 습득과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며 "요즘처럼 나라간 교류가 빈번

하고 국제적 인우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는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노교수는 문화교류, 친선 도모 등을 목적으로 각국의 대학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회의하고 1년에 한 번 정기 모임을 갖는 '시타(Star)'라는 국제적 행사 소개를 덧붙였다.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우리가 번역한 책이 지난 겨울 대전 수원원에서 진행된 워크숍(workshop)과 외국 학생연구원센터에서 주관한 '서유럽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됐을 때"라며 뿌듯함을 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역사를 다루는 재작하는 등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여러 분야에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hanmail.net

구분	16일(토)	17일(일)	18일(수)	19일(목)	20일(금)	21일(토)
아침		인턴십 기업 특별강연회 대학원 소강당 3시 모의면담 대강당 2시	러시아어과 정기총회 수강신청 취소기간			
오후		외국문학연구소 정기학술 발표회 교수회관 2층 3시	여학생취업특강 도서관 세미나실 4시 30분			

방문시설 보완될 수 있게

서울배움터 사범대 건물에는 큰 공간이 두 개로 분할된 강의실이 많다.

그런데 방문객이 전혀 없어 있지 않아 각각의 강의실에서 열리는 소리로 인해 수업을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약한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해서 교수,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창기(사범·독일어 99)

멘트처리, 익도 전달 될 수 있게 해야

인터넷에 내용을 쉽게 처리함으로써 원래 의도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가짜가 멘트로 처리를 할 때는 되도록 부연설명을 덧붙여야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김윤환(사학·신발 96, 서울배움터 화학학생회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실렸으면

학생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문제점들을 알릴 수 있으면 한다.

백종훈(응인배움터 학생처)

학교측 의견에 주의해야

대학학과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접하는 참에 시간의 경우, 때때로 학교측의 의견이 속소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약속의 의견에 대한 비중을 같게 해 주었으면 한다.

김경수(서울배움터 고무과장)

도서관 게시판 부작물에 대한 조사를...

응인배움터 도서관 게시판의 부작물 글자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주면 된다.

(백지대자보에서)

대자보판 사용자가 관리해야

요즘 학교를 돌아다니면 게시판의 지저분함에 경악할 지경이다. 각종 어학 안과 포스터들, 무슨 무슨 공연 포스터에, 대자보판에 자신이 지나 보기 싫게 내놓아놓은 것들이 매달려 있는 꼴을 하며, 붙인 포스터나 대자보 위에 덧붙여, 그 두께가 3cm 정도인 것 등...

언제부터였을까? 학교환경에서 가장 좋은 유망하는 곳은 대자보판이다. 사람들이 알릴 것들이 많아져서라고 생각되는 않는다. 다만 '알릴'이라는 것이 깨끗한 포스터와 잘 꾸며진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다. 대자보판을 붙인 대학생이 지적을 당하고 있다. 단지 그들은 알리고 싶은 것을 알렸으니, 그 지저분함이나,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느낄 불편은 그들이 알 바 아니다.

어느새 지저분한 대자보 정리가 취미생활처럼 굳어져 버렸다. 항상 붙이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누가 붙이고자 했는지, 정리가 대자보에 단지 5분만에 포스터도 도배가 될 줄은, 이 도배꾼들은 항상 학교에 상주한다. 조금의 빈 공간이라도 표시를 놓아도 도배를 해 놓는다. 더군다나, 일부 학생들은 그 도배꾼들보다 한 술 더 떠서 그 도배지

위에 딱하니 자신들의 대자보를 붙인다. 그러하여 그 종이판자들은 4~5cm가 넘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 연히 떨어질 내린다. 집안에서는 온갖 종이들이 즐비하고, 달걀처럼은 그 대자보에, 포스터들은 열거적인 모습으로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유인시킨다.

누가 그 지저분한 것을 쳐다보거나 하겠는가? 포스터나 대자보가 '알릴'에 목적이 있다면, 무질서한 부착은 그 알릴의 목적을 해산하는 것이다. 짜증나서 쳐다보기도 싫은데 무슨 글을 읽겠느냐 말이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을 스스로 무덤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인 의식, 사설 별거 아니다. 출세없는 상업도 아니야! 아무나 때도 뒤리고 하는 사람은 없다. 대자보 붙일때 그런 포스터를 다 떼어내고 붙이면 대자보도 오래가고 좋다. 문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대자보 관리면에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붙여놓고 때때로는 시합을 치루는 사람은 왜 학교 직원에게 물어보지 않나?

다만 조금만 신경쓰자, 책임감이 학생이다! 가짜나 신문을 그 많은 우리들의 눈앞에도 달 필요하...

황현(성경·경제 99)

능동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각 대학에 입학하여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지던 때가 있기에 같은데 벌써 2학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선생님, 교수님이 이끌어 주는 대로 따라갔고 고교 시절과 달리 대학은 자기 스스로 관심 분야를 찾고 혼자 결정해야 할 일만 많다.

그런데 내 주위 친구들 중에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거나 집에 특별한 것도 없는 일찍 귀가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서 심심해서 무료이든, 그래서 M.T, 놀람, 대충해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고 싶지 않은 동기, 선배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일이나 중요해보이는 날이 지날 때마다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바보같을 것 같다. 그래서 M.T, 놀람, 대충해 등의 행사에 꾸준히 참가하고 그 진행부를 하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경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빈터'라는 소모임이 가입되어 있는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없는 사회

제반 현실을 토론하고 심의적인 대중가 요와 민중의 혼이 담긴 아름다운 가요와 우리 민족 정서에 맞는 멜로디의 민중 가요를 기타와 더불어 배운다. 소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선배, 동지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은 큰 하나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외대문외대갈래회의회 산하의 '신색'이라는 중앙 유투브에도 들었고 노래에 맞춰 춤을 배우고 창작하고 각종 문화제에 준비하고 통일 정세에 관련된 교양 시간도 갖는다.

문제를 통해 인간 내면 심리를 형성 화하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 이것 저것 하다 보니 바쁘고 바빠진 하루 하루가 보람차다. 어느 학교보다도 까와 재치가 풍부한 세대가운데서, 학내의 행사 참여와 소모임, 동아리 등의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갔으면 한다.

김정주(동양·마인어 00)

책임기 좋은제절 독서삼매경에 빠져보자

지난주에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평소 학교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집에서 TV를 거의 보지 못하는데 그 주에는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촬영한 내용이 나온다고 비디오 녹화까지 하면서 보았다. 비록 TV로만 후배들의 모습과 장교의 교복과 고등학교 때 나를 직접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뻐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학교와 학생, 선생님의 모습이 주된 것이 아니라 50개의 문제를 풀어 골든벨을 울리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는 어려운 것이 많이 섞여 있어 내과 내가 그 때 문제를 풀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아마 알아 못 가서 탈락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장악퀴즈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오문은 소수의 수재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대학까지 온 지금 고등학생들이 내가 삼매경 들지도 못하지도 못한 단어로 이루어진 퀴즈의 답을 맞추는 것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이런 지식과 교양을 쌓고 있는 때 나는 무엇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퀴즈를 맞추기 위해 지식과 교양을 쌓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폭넓은 지식은 사회에 진출했을 때나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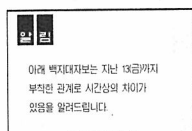
요즘 대학생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

고 하고 사실 나도 그렇다. 또 요즘 같은 시기는 독서를 많이 강조하는 때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권고를 즐겨 듣기도 한다. 정말이지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이지만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시간이란 정말 소중한 것이다. 대학에서의 4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어릴수록하다보면 대학에 재학하는 시간도 금방 지나버리고 만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일부를 좋은 책을 읽으며 보낸다면 우리에게 서서히 쌓이는 지식과 지혜로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누구나 알다시피 독서로 상상력과 감성도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은가? 이 좋은 계절동안 좋은 책과 더불어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책을 읽는 외대인의 모습이 캠퍼스를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다.

윤재정(서유럽·불어 00)



의대학보

노벨평화상 값이 땅에 떨어졌다

-03-

DI가 노벨평화상 받으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전부 노벨상 받겠다.

그러나 걱정하는 사람

그럼 클린 주인은 뭘 받을까? 잘 키워있으니 노벨교육자?

...숨은사람일까?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평화상'이라면 관영에 할 소식이나?

...평화주의자



주제: 김대중 대통령 이 노벨평화상 유력한 후보라는데...

세계가 좀더 나은 일을 하게 되겠지...

...상주는 사람

그 정도로 계속 후보였는데 타면 좋지요...

...다들후보자

출대 DI들이 웃는다.

...DJ 연합회

...평배기

외국어시험대비반

모집기간: 10월16일 ~ 11월1일

■이른 아침반
11월 6일~12월15일(9주, 주 5회, 월.수.목.금)

시간	과목	TOEIC 강점반	TOEFL(인) 강점반
8시 ~ 9시50분	교재 Power TOEIC		Introductory course of TOEFL Test

■아간 정규반

과목	TOEIC 종합 Advanced	TOEFL 종합 Advanced	일본어능력시험 JLPT / JPT	HSK(중급) / HSK(고급)	중국어	Nancy
시간	8시 ~ 9시50분	9시 ~ 10시40분	10시 ~ 11시40분	11시 ~ 12시	12시 ~ 13시	13시 ~ 14시

* 세계적인 강의와 수강생 개개인의 시험준비 전략을 통해 만족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수강료 (6주과정)
아침반 TOEIC/TOEFL: 120,000원 (재수강생: 110,000원)
아간 반: 180,000원(재수강생: 160,000원)

한국의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국제지역대학원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

본 대학원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입니다.

1. 모집학과 및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총85명)
한국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동남·남아시아학과, 중동·아프리카학과, 러시아·동유럽학과, 유럽연합학과, 북미학과, 중남미학과(9개 학과)
나. 박사학위과정(총10명)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중국전공, 일본전공, 동남·남아시아전공, 중동·아프리카전공, 러시아·동유럽전공, 유럽연합전공, 북미전공, 중남미전공)
국제관계학과(국제정치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비교사회·문화학전공)

2. 전형일정
가. 교부기간: 2000. 10. 30(월)~11. 3(금)
나. 접수기간: 2000. 11. 1(수) ~ 11. 3(금)
다. 전 형 일: 2000. 11. 18(토) 10:00(박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시험)
2000. 11. 18(토) 11:00(석사과정 공통면접시험)
2000. 11. 25(토) 10:00(석사과정 면접시험, 한국학과, 특별면접)
라. 1차합격자 발표: 2000. 11. 23(목) 본 대학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최종 합격자 발표: 2000. 12. 5(화) 본 대학원 게시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은 국제지역대학원 교과학과 신입생모집 요강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 : //www.gias.hankuk.ac.kr , 전화 : 02) 961-4198, 965-2683
서울시 용문동 270, 전설 1호선 외대역(가) 역(가)역에서 5분거리

국 제 지 역 대 학 원

21세기 필수직업 능력·번역사의 요망 통역번역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75%
87개 언어 장기간 해외연수 혜택 국내 최고의 교수진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학원은 1999년 통역·번역분야 교육부 지정 두뇌한국(BK)21 특화사업단으로 더욱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작생 중 70%의 학생이 BK장학금으로 학기당 240만원의 장학금도 받고 또 별도로 5%의 제작생이 학교 장학금도 받습니다.

세계수준의 시설에서 우수한 전임 교수진의 BK사업으로 보강된 계약교수 14명 등이 최고의강의를 선보입니다.

2001학년도 입학전형일정

■모집학과(석사학위과정 포함)

- 21번(아프리카): 한중, 한일, 한노, 한노, 한노, 한노, 한노(8개학과)
- 22번(아프리카): 한중, 한일, 한노, 한노, 한노, 한노, 한노(8개학과)

■특수언어(통역학과): 한·미(아프리카)특수언어(통역학과) 한·미(아프리카)한미(아프리카)

■일반언어(통역학과) (통역학과 포함)

- 1번(통역학과): 한·미(아프리카) 2000. 11. 4(토), 10:00
- 2번(통역학과): 한·미(아프리카) 2000. 11. 10(금)
- 3번(통역학과): 한·미(아프리카) 2000. 11. 11(토), 10:00부터
- 4번(통역학과): 한·미(아프리카) 2000. 11. 17(금), 15:00

통 역 번 역 대 학 원

2000학년도 제2학기 복수전공 이수신청

2000학년도 제2학기 서울캠퍼스 복수전공 이수신청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 신청기간: 2000. 10. 9(월) ~ 10. 20(금)
- 신청장소: 대학대학 교학과
- 신청자격: 가. 7학기(초기졸업 6학기)까지 제1전공 평점평균이 2.50이상인 자.
나. 제1전공을 8학기(초기졸업 7학기)이내에 이수할 수 있는 자.
다. 복수전공 희망학과와 부전공 과목을 18학점이 상 취득한 자.
- 제출서류: 가. 복수전공 이수신청서(교학과배치)
나.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 복수전공이수 허가자 발표: 2000년 11월 중 단과대학별 공고

* 복수전공 허가기간을 3/4선 이전 소정기간(학기)에 공고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0학년도 제2학기 강의시간표(10학) 참조

2000. 10. 16

교 무 처 장



“국가보안법이 정말 그 존재의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같이 힘을 모아주세요.” 의현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참여 수사의 인권유린과 불법성을 전하기 위해 김대중, 황태호 대표처럼 후원자 집회에 가족대행자 사람들이 무대위에 올랐다. 관공에서 기다리시는 형님께서요 라는 말이 국가공무원 집단을 상대로 법학대통령을 해하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된다.

노벨평화상 양지속에 민혁당 사건 음지

지난해 9월 80년대 ‘강철사신’의 저자로 알려진 주시파의 대부 김영환씨가 국정원에 자수하면서 시작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그의 자수로 인해 하영국, 김경환, 심계춘씨가 민혁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현재까지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점점 추위지는 날씨에 감옥에서 멀어 지면 그들을 생각하며 하루라도 편히 잘 수 없는 가족들. 그들에게 함께 할 동지들이 생겼다. 다름이 아닌 1년반 이다. 다시 부활한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가족들이다. 지난 9월 9일 국가보안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최정수, 박정훈, 한영진, 박종석씨를 연행해 민혁당 사건을 또 다시 터트렸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만나 통일분위기가 한때에 에 들끓고 있는 요즘에 간첩사건이 터진 것에 의문을 가지며 그 가족들을 만나보았다.

최정수(우리학교 83학번)씨 동생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면회시간을 기다리면서 “김대중 오빠의 옷을 벗긴 후 앞으로 김대중관장과 심기갑사장을 일반적인 관례에 예기하며 폐쇄된 공간에서 수치를 유감하기도 했다. 김대중관장 이후 통풍상 상태를 수사를 진행하는 국정원은 역시 안기부에서! 이틀만 바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라는 인권침해수사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면회실 창살 너머로 푸른 죄수복을 입은 최씨는 재판을 앞두고 해야 할 일과 운동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아픈 죄수에게 약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는 감옥의 열악한 현상을 알리고자 동생에게 당부했다. “부모라는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딸자녀의 생애선물

을 꼭 챙기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전날에는 민혁당 가입, 이적단체 찬양고무로 연행되고 국가보안법을 어겨 감옥에 있는 박정훈 선생이 있던 이회고개를 찾았다. 과학 책들과 운동회 때 달리기용 하고 있는 박씨의 사진이 놓여있는 빈 책상의 의자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지난 학기까지 수업을 했던 1학년 3반 교실에는 “1-3”이라는 특이한 교호가 붙어 있었다. 그 교호에 걸맞게 ‘친구 칭찬하는 숙제장,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서 하나하나 박씨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진태일문제를 권유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정태일문제를 얘기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부 담담 간첩이 되어버린 박씨. 이번 사건으로 직무해제 논란이 학교이사회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그가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학교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는 폭죽이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뒤돌아보고 “북한사회와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유로 민혁당의 총책을 맡은 김영환씨는 공소보류시키고 그와 지수한 다른사람의 진술만으로 민혁당 사건을 진행하는 국가보안법. 국민의 78.2%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92.9%, 법학교수의 99%가 개혁을 지지한다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온 국가보안법. 여전히 김대중대통령이 살아야 할 과제들을 떠맡으며 학교를 나오는 길이었기에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폭죽에 감탄과 기쁨

을 주었다. 모여 대학의를 하는 가족들 같은 차지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 1차 민혁당 가족들과도 많이 가까워진 그들은 가족끼리 영토도 간다고 한다. 감옥안에 있는 민혁당 피의자들이 그런 가족들을 보고싶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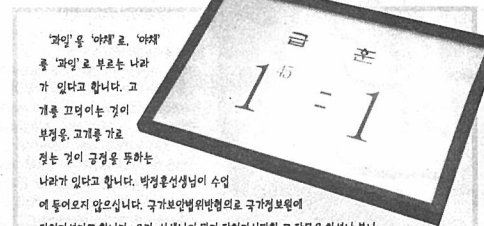


의 탄성이 나오지 않았다.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민혁당학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목회의를 하는 중에 “김대중 대통령은 오슬로로, 민혁당피의자들은 가족의 품으로”라는 플랜카드를 국회앞에 걸어버지는 우스개소리를 했다. 그저 농담으로 하기에 많은 의미를 지닌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획 사진부



“이름만 바꾼 국가보안법. 그러다 호박이 수박이된 겁니다.” 민주노동당 민주정부 신천국장을 맡고 있었던 박종석씨. 그동안 함께 지내던 노동자들과 밀고 따르던 그의 직업을 취하고 있다. “참과 거짓을 지키는 것은 민권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국민” 박씨는 국가보안법 발효를 반대하며 시민단체, 출판, 교정개혁으로 교정을 보다가 갑자기 잡히게 되었다.



“죄”를 ‘바’로, ‘바’를 ‘국’으로 부르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개를 꼬이는 것이 부정부, 고개를 가로질는 것이 공정을 뜻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박정훈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국가보안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평가장치가실만한 문장문을 하셨습니다. 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주체사상을 주입시킬 때 문에 정해지신거 같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이념과 다르다고요. 그럴 민주주의사상과 주체사상은 서로 다른 쪽에 있는 이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리의 의하면, 우리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알려주기 위해 애쓰셨을거라고요. 사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리가 맞습니다.

지난 1년동안 선생님을 통하여 무한한 것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일평생가 때의 정경호선생님도, 학구열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싫어했었고, 선생님은 이런 저런을 달래고서 고치에 대한 토론도 시키셨고요. 아쉽습니다. 농촌봉사활동중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생님. ‘선생님’이란 직업의 소고함을 일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생활 때 정경호선생님에 써 놓은 여러 개의 직업 중 선생님이라고 쓴 것을 보신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부러워. 그 정경호선생님도 알 수 있잖아.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면, 선생님은 참 정경호선생님이다”라고. 박정훈선생님. 저의 11년간의 학교생활 중에 만난 많은 선생님들 중에 서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승으로 생각하고 싶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동아한다”가 아닌 “준경한다”의 느낌은 어떨까요? 아니까 느끼게 해 주십시오.

선생님을 돌려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을 순수하게 믿고 있는 저희의 국가에 대한 믿음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한가지 슬픈 것은, 선생님이 우리 곁에 돌아오셔서 이 믿음은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라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국정원에서조차도 선생님의 목숨을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을 저희에게 돌려주세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곳은 국정원이나 검찰이 아니라 학교. 바로 저희들의 곁입니다.

-이회고 홈페이지에서





6·7 2000년 10월 17일 772호
주제 기획

세계와의 엔진을 멈춰라

아셈회의의 태동 배경과 본질

소수의 번영과 다수의 빈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또 다른 이름... 아셈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관계?

오는 10월 20~2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리는 제 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의 공식 포이다. 25개 나라 정상(정부 수반)은 물론 대법관, 기자단을 포함해 3,000여 명이 참가하고 전세계인이 주목하는 이 '대단한 회의'의 목적은 별개. 과연 이 행사는 노동자·농민 기층 민중에게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약속하고 있는가.

요즘 신문은 보면 이러한 대단한 회의를 지지하고자 하는 흐름도 만만치 않은 듯 하다. 작년 11월 시애틀에서 있었던 WTO 각료회의 지지 투쟁을 성사시켰던 전세계 민중진영은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도 IMF 총회에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다시 아셈 2000 서울대회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아셈을 거부하면서 신자유주의 반대를 주장하는 전 세계 민중진영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의 상경포고도 대단하다. 플라스크 1회용 수갑을 사는가하면 방탄 장갑까지 유류 기포공함 주변을 배회하고 있고, 대화장 준비를 위해 특전사까지 동원한다고 떠돌아다니고 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민중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권력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과연 때문에 전세계의 민중진영은 아셈회의를 지지하고 싶어 하는가?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 보자.

아셈회의의 국제정치적

우선 아셈회의의 이해를 위해 아셈회의의 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면상 아셈회의는 아시아 지역에서 기존의 미국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독자적인 세력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셈을 주도한 것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구성된 동남아 경제협력체 즉 '아세안'이었다.

이들은 아셈회의를 통해서 유럽을 끌어들이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극복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아셈회의에 대해 공공연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 수밖에 없는 일본과 한국이 아셈회의의 참가를 주저했던 것은 모두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아셈회의가 성립되기까지는 말레이시아에 의해 적극 제기된 동아시아경제회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1981년 취임한 말레이시아 수상 마하티르는 시종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부흥을 주장해 왔다. 동아시아경제회의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경제관계를 두텁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참가대상국도 일본, 중국, 한국, 대만, 홍콩, 그리고 아세안국가 등 동아시아국가에 한정되었다. 당연히 미국은 처음부터 자신을 배제한 이 구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불만의 정도는 대통령과 고위관료들까지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로 매우 격렬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경제회의의 구상은 싱가포르에 의해 수정 제안되면서 아셈회의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아셈, 그 정체는 무엇인가

아셈은 아시아·유럽간의 관계 강화를 내세우며 96년 3월 출범했다. 아셈의 구조는 1, 2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점차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데, 고위장관회의와 외무장관, 재무장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아셈은 경제적인 이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양 지역간 포괄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목표로 내세우며 그같은 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간의 과정을 보면 양 지역간의 '무역과 투자 증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 왔다.

사실 아셈은 유럽의 초국적 자본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미국과 일본 자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서 아시아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상황에서 유럽의 자본들도 아시아 시장에 공공연히 진출하여 아시아 노동자·민중들을 착취·수탈할 기회를 확보해 보려고 한 것이 아셈을 만든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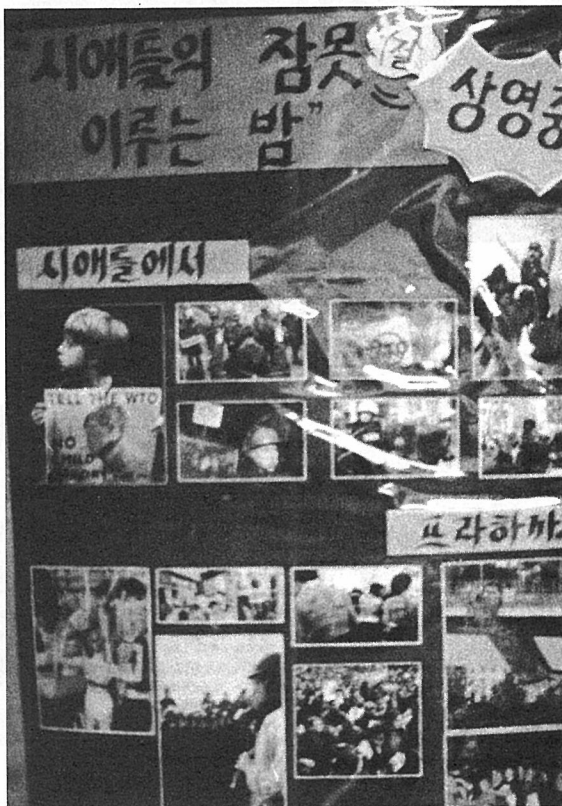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셈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럽 자본도 자본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착취를 당하는 제3세계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제국주의적인 초국적 자본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자본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 제3세계를 장악하여 식민지화하고 무자비하게 착취·수탈을 한 바 있다. 서로 식민지 정쟁전을 벌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까지 벌인 주범이었다. 작년 시애틀에서 열린 소위 '발레 니엄 라운드'에서도 유럽연합은 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뉴라운드 출범을 앞장서서 주창했다.

요컨대 유럽 초국적 자본은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자본과 일면 경쟁, 일면 협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지구적 자본주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한 축이다. 그리고 아셈은 그러한 유럽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 집행기관의 하나일 뿐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역시 양 지역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을 민중의 손으로 막아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흐름은 도전받고 있다. 멕시코 차이와 스 잠글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파이스와 농민군,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 IMF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는 한국의 노동자층, 개발농민의 이해를 보지 않고는 농민 탈식량에 대한 농민들의 처절한 투쟁...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으로 거스려줄 수 없는 대세였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물결은 파고나 시그라할 것이다.

이 지점의 흐름은 시장개방과 금융세계화만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오는 10월 20일 다시한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초국적자본과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이 거리를 맞붙게 된

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외치는 민중들의 함성과 함께...

주제준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중심적 보전 민중대화위원회 사무국)

아셈과 신자유주의에 관한 Q&A 51

Q1 아셈은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가 아니라, 타락성과 역동성을 가진 열린 기구라고 하는데 굳이 반아셈투쟁을 하는 이유는?

A1 의례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합의하는 1996년 1차 회의에 이어 1998년 2차 연례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들과 후속사업들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무역 인화와 행동계획' '투자 촉진 행동계획'과 같은 아시아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면서 아셈은 해를 거듭할수록, 합의된 사항의 이행에 점검하는 시스템까지 갖추며 점점 제도화되고 있다.

특히 2차 연례 정상회의 때 한국 정부가 발의하여 만든 특별대책위원회 제출한 보고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는 자유화와 시장개방' '아시아-유럽 금융안정위원회' '아시아-유럽 무역 무역촉진' 등을 아셈의 중점과제 발전을 위한 핵심 의제로 상정하고 있다. 나아가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강화하고, 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협력관계의 구축'을 주제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제출하고 있기까지 한다.

Q3 반아셈 움직임들은 '투자협정', 'WTO·IMF 구조조정협정' 등 모든 형태의 자유화·개방화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럼 세계경제를 지향하는 것인가?

A2 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인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위기를 관 조적인 경제위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생산된 잉여 가치의 대부분을 기술과 지식, 금융과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에게만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WTO 뉴라운드나 미국, 일본과의 투자협정을 통한 자유화 개방과 역시 구조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가 커녕 이를 증폭시켜 한국경제를 더욱 침체로 몰아가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및 노동권, 환경에 대한 권리, 여성의 권리를 축소 해 손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 늘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협정, WTO, IMF, 아셈을 반대하는 것은 중상조와 주변국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그 객체가 확대재생산되는 현재의 세계경제구조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활동으로 인해 제3세계의 경제 주권이 위헌되고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훼손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Q3 혹은 WTO가 다자간체제가 때문에 안락한체제로 상대적으로 합의는 논리가 적게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가?

A3 실제로 정부는 WTO의 장점을 말하면서, '다자간체제이기 때문에 강제국 합의의 논리에 적게 휘둘릴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다. 어떻게 보면 WTO의 구조적인 불평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결정은 '보통화협정'이다.

한시적으로 분쟁해결은 분쟁해결기구(DSB)의 책임에 있지만, '누가 옳고 그른지'의 판단은 단 3인으로 구성된 '패널'에서 하며, 또한 패널로부터는 자중적으로 채택되며, 패스없이 상대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 왜냐하면, 약소국이 실사 강대국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강대국이 비타협 약소국은 어떻게 해를 재건이 없기 때문이다.

약소국은 미국이 국내정책을 WTO의 패배주의의 권고사항에 따라 변경해줄 것을 기다릴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보복조치' 논리는 철저하게 제국주의 국가들-특히 미국에게 유리할 뿐이다.

Q4 시애틀-워싱턴-프라하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국제연대투쟁이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A4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각종 민중들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것이 일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연대투쟁이 국제적인 '성과'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국제연대투쟁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추진하려는 다자간투자협정은 전세계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96년 논의가 중단되었고, 수년동안 전개된 외채감축운동은 비록 작지만 96년 G7회의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렸기도 했다. 최빈국의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선진국들의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국제연대투쟁이 국제적인 성과를 조금씩 남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셈은 시애틀-워싱턴-프라하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국제연대투쟁이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Q5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은 WTO와 투자협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IMF 구조조정에 의한 것 같은데... WTO와 투자협정반대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가하는 이유는?

A5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 속에서, WTO, IMF 그리고 투자협정의 위상과 역할은 약간씩 다르다. IMF는 '국제금융'을 무기로 제3세계 경제정책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주로 '차관협정'의 형태로 이뤄진다. 한편 WTO와 투자협정은 우리나라가 그곳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영구히 '국제법적 조항'으로 남아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목표하에 투쟁해야 하고, 그 목표 속에 WTO·IMF·투자협정 반대 투쟁이 위치되 있다. 또한 여기에 또 다른 제국주의적 질서의 유지와 세계 제3세계의 문제점, 경제의 금융화 경향 속에서 현재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금융시장 독재체제'에 대한 대응 투쟁이 결합되어야 한다.

아셈(ASEM) 서울 2000 · 신자유주의 왜 반대하나?

각계의 반응과 대응



"교육적 박탈과 교육의 계층화 심화"

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가치이다. 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을 통해 자생 산되는 가치를 후손들에게 되돌려주는 '국가의 영속'을 도모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은 모든 개인에게 빈부, 민족 등을 뛰어 넘어 한 국가가 보편해야 할 개인의 권리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가
사실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계층조사 한 결과가 흥미로웠다. 조사 결과 다른 지역보다 서울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상위권 학교에는 서울의 명문학교 출신이 50%를 넘어 대학 포진 자체도 계층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점점 양성, 세계의 흐름과 발맞추어 간다'는 명목 하에 국가가 특정계층에게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개 다수의 민중들은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전문 기능직으로 전락할 우려도 생기는 것이다.

이번 아셈회의와 교육의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번 아셈에서 교육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의제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 왔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과 교육 자율화라는 논의의 초점이 되는 아셈회의와는 같은 흐름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교육개혁 8% 확충이라는 선거공약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무이양조항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보조금을 제한하는 것 등은 정부가 교육시장의 개편 속에 교육을 내 던져버리는 것이다. 또한 한미투자협정 이후 가속화된 교육시장의 전면 개방과 현재 추진 중인 고위급 대학 특성화들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켜 교육을 계층화시키고 김대중 중심의 경제체제 속으로 재편될 것이다.

현재 대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장개편의 모습은

취업과 아르바이트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노동의 조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가 해당되는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본이윤체제의 개편속에서 실질적으로 삶의 구성요소가 파괴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분노 폭발 직전"

이번 3차 아셈회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유럽과 아시아가 미국을 견제하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로의 이익을 보강하며,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조건속에서 자본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셈의 목표이다. 성격자체가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본활동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구조가 탄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을 위시한 초국적인 자본이 들어온다면 경제가반이 무너지는 등의 문제점은 충분히 도사리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해외직접, 정리해고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부분별로 설명을 해줄다.
공기업 민영화는 결국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공기업 민영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해외자본이 손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의 투자가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국내 우량기업을 팔았을 때가 아니라 달라도 더 부유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외국에 종속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해외자본은 고용불안정을 초래한다. 단적으로 삼성이 르노에 넘어갔을 때 노동자들은 대거 정리해고 당해야만 했다. 실질 소유권이 외국기업에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요구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셈회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아셈회의가 열리는 오는 2002(금)을 기점으로 반아셈을 위한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아셈회의 이후, 정기국회에서 아셈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초국적 자본주의의 유치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완화시키고 외국자본이 들어왔을 때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동관계법을 개정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해 한다. 이런 경우, IMF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노가 극에 달한 60만 노동자들은 각자의 사업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앞으로 아셈을 시작으로 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이번 계기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우혜나 기자 mimo329@hanmail.net



"돈 없으면 치료조차 못받고 죽는 시체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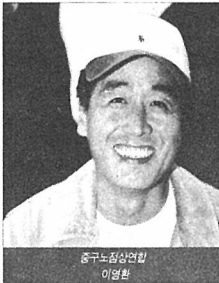
의사때임으로 불살을 잃고 있는 오늘 의료계 분위기는

장기 폐암에 대한 우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에 대한 상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문제다. 의료권위만 발목잡아 무조건적인 의료보험으로 인신권을 고집한다면 의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장르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단행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연월차 휴가를 강제로 쓰게 하는 등(병원원칙)에 정식으로 되지 않으면) 실제로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다.

WTO협정에 따른 보건, 의료계 구조조정 사항 중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의료보험 민영화 방안이다. 의료보험 민영화란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영기업에게 넘겨주겠다는 이기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된 돈 없는 사립은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89년 의료보험이 전국민적으로 확대되었지만 현재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도 27~30%를 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는 작가가 나고 의료계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50% 이상으로 국가지원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의료보험의 개편인데 현재는 국가규제하의 의료보험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묶여 있었던 이들이 들어오면 규제완화, 경쟁을 요구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의료시장 개방, 민영화 정책 등이 병원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우리 병원은 학교소유라 아직까지 별다른 영향은 없다. 하지만 보훈병원, 원자력 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15~20%정도씩 국가지원금이 삭감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환원되는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외국기업이 들어올 경우 더 커질 것이다.



"국민을 쓰러뜨기 치부하는 국민의 정부는 기만이다"

단속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서울시는 8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노점상 특별 정비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아셈회의가 열린 주면, 속박지인 시초, 강남, 종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서초지역은 이미 용역업체와 5억원 상당의 계약이 된 상태이며 라이가 압수, 강제 철거 등이 자행되어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다른 지역 또한 단속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난 6월 해운대 폭포자부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부녀노점상연환 하제명씨는 경찰총의 폭력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 현재 위중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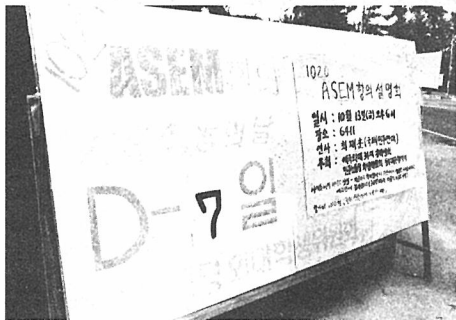
국제적 형사가 있을 때마다 탄압이 자행되는데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리의 프라기치만 치부하고 탄압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있으며, 도시미관보다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고 중요시 되어야 하는 생존권 특유의 부분이 무시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이미 여러 부분에서 확인됐듯이 재벌, 기득권층의 비호세력이며, 보수정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치, 권위의 행태이다. 회의장 주변 아스팔트 재포장, 2부제 실시 등 시민의 편의는 생각지 않고 정부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점상 연합의 요구사항과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노점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민중이 주인되는 정치권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현재 지역적 투쟁이 활발하며 경험과 교육으로 상인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진정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보아야 한다. 항상 경제난 속에서 제일 큰 고통은 노동자들이 받아 왔다. 우리 노점상연합은 전국 노점상들과 함께 단결과 투쟁으로 반드시 생존권을 확보할 것이다.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hanmail.net



아셈 서울 2000 무엇을 얘기하나?

아셈의 중장기 발전전망 수립 목표 자유화 · 시장개방 · 투자무역 촉진에 핵심의제 사회적 의제 부족해 시민단체 비판

10월 20일 열린 3차 서울아셈회의는 공식 의제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아셈의 특성(7)상 아시아·유럽 정상들이 회의기간 동안 구체적인 아셈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하지만 이번 3차 회의는 아셈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망 수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셈비전그룹'의 보고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회의의 의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원필자

1996년 1차 방콕 회의에서는 회의 개최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보 분야에서의 정치·인보 대화의 촉진, LNI 개혁 노력지, 방제개혁 구축 노력지, ▲경제개혁에서 -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강화,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민간 기업간의 협력확대, ▲환경·마약·테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문화·예술·교육 및 관광발전 등과 같은 여러개의 의제를 선정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1996년 2차 런던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들과 후속시업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무역 원활화 행동계획', '투자 촉진 행동계획'과 같은 아시아의 경제 기 상향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들이 제출되었다. 그러해서 아셈은 해를 거듭할수록,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시스템까지 갖추어 점점 제도와 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서 결정한 비전과 목표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아시아·유럽 협력 지침서』를 채택하는 등, ASEM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방콕 1차회의에서 제안하고, 2차 런던회의에서 설치가 합의된 '아셈 비전그룹'의 연구 결과를 제출된 보고서·'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를 토대로 논의를 것이다. 이를 통해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전제로 아셈회의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었다.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자유화와 시장개방', '아시아·유럽 금융안정 협력', '아시아·유럽 투자무역 촉진' 등을 중장기적 전망의 핵심의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완전한 자유

보고서에는 2005년까지 아시아 유럽간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한 완전 자유화를 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단계적 개방화의 전략을 채택하여 뚜렷한 기한 및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여, 모든 분야, 산업, 시장에 걸친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WTO가 추구하는 자유 무역 체제를 '아시아·유럽'이 선도적으로 완성할 것을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 금융개혁과 거시경제정책적 조정

지구와 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금융구조에 조응하기 위하여,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금융 시스템에서의 개혁에 접근한다. 특히, 단기 자본 이동이 가져오는 변동성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국내 경기균형 시장을 강화한다. 아셈 회원국은 외환보유고, 외채의 규모 등에 관한 금융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외환시장과 금융서비스 자재구조로 금융시스템을 개편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즉, 전세계적인 금융개혁과 강화할 합의하고,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를 최대한 예상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 투자·무역의 활성화

다음으로, '투자촉진 계획'으로는 아시아 유럽 간에 투자·무역의 촉진하기 위하여 결정한 '투자촉진 행동계획', '무역완화와 행동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002년부터는 아셈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아시아·유럽 무역주간'을 두어, 이 기

간동안 비즈니스 심포지엄, 산업투어, 기술전시회, 무역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양 지역간의 투자·무역의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계획으로 제시한다. 또한 초국적자본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투명한 조세제도,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해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하는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탈규제화 등을 그들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다.

요컨대 아셈의 프로젝트는 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를 개편하고 금융시장은 완전 자유화되며,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아시아·유럽 지역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국적자본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특성에서는 자본간 경쟁이 강화되어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정리해고와 예정된 인수합병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은 기정사실이다.

게다가 개별국가들은 국민경제적 필요에 입각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유럽연합간에는 통화동맹이 맺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유럽 중앙은행을 통하여 금리·통화정책이 결정되므로 각각의 거시경제정책은 독자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효과가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셈을 통하여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셈의 강화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세계 질서에 복무하는, 금융시장이 개방된 강력한 '일부분'이 형성되는 것에 불과하다.

아셈에도 주요 의제 가운데는 6·15공동선언의 국제적 공여내용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한국이 아셈회의의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특히 회의 기간 중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근래 남북한 통일국면에 대한 아셈 차원의 지지와 표명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서울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시아 유럽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사회적 제제-인권, 빈곤, 환경개방, 민주화, 환경 등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아셈 2000 민간포럼'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리 사회부

▼ 아셈 3차 회의가 개최되는 삼성동 컨벤션센터 주위 모습이다



2000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평가 및 전망
2000 하반기

한 단계 도약한 세민전, 성과 이어야

지난 9월 26일(화)부터 3주간 세계의 춤, 음악, 영화, 미술, 학술적인 내용까지 담아낸 종합매체로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이 지난 12일(목) 학술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본보에서는 올해 세민전을 평가하고 더 나은 세민전을 위한 모색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한지아

"예년에 비해 각 행사별로 이벤트, 준비절도, 진행과정 등이 전반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화성저 동아리단단 백종준)

"대외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행사 중에 가장 좋았다. 세민전은 외대만의 특징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여대를 대표하는 행사인 것 같다"(서유림·독일인 00 손기섭)

외대구성원들은 이번 세민전에 예년에 비해 준비절도, 내용상면에서 더 향상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처음으로 학술제가 성사되고 모든 행사마다 비어문제의 참여를 유도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세민전 준비위원회 손정택(인문·철학 98)군 또한 "지난 98년 4회 행사때도 기획했으나 원

경, 역량의 이유로 처리지 못한 학술제를 성사해 가장 기쁘다. 이로써 진정한 세계민속 학술 문화축전의 이념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학술제와 함께 진행된 거리전, 각 팀별 토론회와 발표회로 이루어진 학술제는 각 과 학회의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비어문제를 참여의 경우 매해 세민전 평가마다 도출되었던 지점으로 이번 세민전에서는 기획단계부터 이 부분을 대한 계획을 세웠다. 풍물음악의 경우 '한국풍'으로 참여한 정보산악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대학, 경상대학은 식혜와 파전, 김치떡과 감자말리지점을 남김, 복내면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또한 학술제의 자연대 학술전시, 민속공연 영상물 제작한 컴퓨터 공학과 등 세민전이 어문계열만의 행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노려온 흔적이 엿보인다. 그외에도 각과의 세민전으로 인한 성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과 학회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역할을 찾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공계열의 경우 이전에는 학회모임이 실질적으로 학회원만 모였다고 가끔 모임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세민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학회의 특성대로 내용을 준비하면서 학회들이 다시 정비되었다. 이

렇듯 세민전은 점체되고 있는 학회를 활성화시키는 진폭제작을 하며 나아가 외대의 문화, 학술적 측면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있었지만 과제로 도출되는 부분도 있다. 첫째, 세민전의 전체 구조의 위기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행사와 기조가 소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 행사마다 청년, 화랑, 대동 등의 주제는 늘 있어왔으며 또한 너무 포괄적이다. 그것은 당연히 부합되는 학내의 흐름들을 통해, 새로운 고민으로 이번 세민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조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주교류 실질성을 이루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경영대의외의 자주교류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학내 여론이나 경영의 대외인기 등을 진행했던 실질적인 방문 접수 신청이나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에는 미흡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는 세민전 상설기구화의 문제이다. 세민전 홍보부장 신은주(서유림·독일인 98)장은 "98년 4회 세민전에서 홍보부장이었다. 그때도 그전 지료가 정리되어있지 않아 하도 이 발할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98년과 연결하여 자료를 받지 못해 새롭고 행사를 준

비해야했다"고 전한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하여 98년말에는 세민전이 상설기구화, 하지만 상설기구화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올해도 같은 고민을 답습해야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에 부총학생회장 정구문(통학·중국어 94)군은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원칙은 가지고 있다. 그동안 행사를 치루고 정리하는 것은 점점 새롭고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며 상설기구화에 대한 부분은 이후 세민전과 논의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격년제로 열리는 세민전은 그 인식년에 지난 세민전을 정리하고 작은 세민전을 연다든지, 혹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민속학을 가르칠 수 있는 강좌를 여는 것 등 그 내용과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해졌다.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점은 학회에서 행사하며 축제분위를 만들어가는 것만은 학내에서도 세민전이 여론화가 많이 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이번 세민전은 학내영화제, 학내 풍물음악전이 열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민속의상 퍼레이드나 학생회관 중심의 행사가 아닌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확산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윤홍은 기자happyend21@hanmail.net



서울메트로 세계영화제 보도

자기색깔 찾아야 할 네살박이 행사

각국 영화들을 종류별로 관람할 수 있는 외대민의 작은 영화제, 서울메트로 세계영화제가 지난 9월(월)부터 11일(수)까지 대강당, 노전극장, 도서관 앞 상설무대 등지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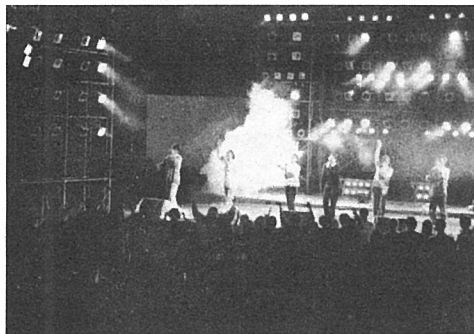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매년 하나의 주제 속에 통일된 흐름을 만들어가던 방식과는 달리 올해는 특정한 주제 없이 메인영화제, 심어영화제, 통일영화제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영화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메인영화제에서는 '하얀종신' '백상사립속의 동화' '남녀' 등의 작품이, 흥행성 있는 작품을 상영하는 심어영화제에서는 '외조종' '글래디에이터' 등의 작품이 상영됐다.

이번 세계영화제 행사기간중에는 초청가수 공연이나 문화제도 열렸는데 9월 개막작에는 디제이 더(DJ.DC)와 인디 밴드의 공연이, 이어 10월(수)에는 '영리한 나무' 등의 북한영화 상영과 통일문화제도 열렸다. 특히, 통일문화제에서는 풍물제의 집배, 통일채널 김주희씨 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세계영화제의 변화에 대해 다량의 추구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3년째 세계영화제를 주관했다는 김호준(법·법학 3)군은 "특정한 주제없이 흥행성 위주로는 느낀다. 또한 여러 행사를 한꺼번에 배치



해 행사의 성격이 모호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행사를 준비한 총학생회 기획국장 정성희(통학·이런이 97)장은 "각국의 영화 중 세계영화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제는 메인영화제"라며 세계영화제의 중심은 여전히 메인영화제에 있음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규모, 내용면에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영화제. 지역와 중심의 연구와 학제개념이 대두되는 이때 좀 더 지역적이고 참신한 내용의 영화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화부 oedae98@hanmail.net

대인이 외대인에게

제어계측공학과 마이크로봇연구회

97년 겨울 4학년 산대 4분으로 시작한 우리 학회. 98년 여름방학직전 현재 3학년인 4명의 2기 신입생을 받으며 동시에 그동안의 연구와 노력으로 교수님들이 공대에 따로 학회방을 마련해 주어서 로봇에 관한 연구를 심층 있게 연구하기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서는 학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생겨났습니다. 3월에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 저희 아이템이 우수 아이템으로 선정되어 학교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금을 후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역연합회에 가입하여 한층 더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연합회 활동을 통해 다른 학교의 벤처 동아리와 더 많은 지식의 교류를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저희 학회에서는 경상북도와 포항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제2회 전국지능로봇대회를 출전하기로 결심하고 수개월간의 연



최원혁

(정보실업공·제이계측공 98)

준비를 하였고 다음날 목표했던 오전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원은 잘 움직이던 로봇이 약간 오동작을 하였고 저희는 불안한 마음을 가졌으나 오후에 발표결과 저희팀은 연구성을 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에서도 나왔으며 그리고 참가팀의 대부분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나왔을 만큼 참가자들의 실력이 좋은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대회 입상을 통하여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 가는 학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족의 언어를 찾아서

의석여, 외대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사람들이 두들두들 떨면서 다닌다." "아들타고 애를 쓰며 일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아 속이 바글바글된다." "말랑말랑 빵을 소"

두들두들-두들두들

아들타고-원정

말랑말랑-바글바글, 말랑말랑

<하나되는 말글살이 우리말연구회>

동부화재
www.cyberdongbu.co.kr

내 선택의 기준은 꿈!

대학 입학할 때를 기억하세요?

나를 받아줄 곳이 어디인가에 앞서 나의 꿈을 펼칠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는 당신!

동부화재는 바로 그런 당신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입니다.

안정된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회사,

미래를 위해 항상 준비하는 회사,

동부화재는 젊음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